

학교탐방

“사랑·대화·칭찬이 넘치는 옹골찬 학교”

동광중학교

각종 지원금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 기본생활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등 운영

동광중학교는 1952년 3학급 개교 이래 2011년 현재까지 8,1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는 학생수 감소로 1·2학년 1학급, 3학년 2학급 모두 4학급 107명이 재학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남녀공학 학교이다.



김석기 교장

학생들은 우수한 성품으로 선생님들의 지도에 충실히 따르며, 교과와 생활지도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과 가정환경 파악을 통해 질 높은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동광중학교는 ‘사랑·대화·칭찬이 넘치는 옹골찬 학교’라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 기자재 현대화, 학생복지 개선, 교직원 복지제체 개선 등을 골자로 연차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08, 2009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했다. 2009~2011 3년간 연중돌봄학교 유형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으로 매년 9천여 만원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2천 500여만원을 활용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시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기여와 내실 있는 교육을 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실전에 앞장서고 있다.

동광중학교는 기본생활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등 크게 다섯 영역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생활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으로는 동광중학교 총동문회(회장 정창균)의 지원으로 3년째 신입생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력검진 및 안경지원, 야간 공부방 석식 제공 및 귀가 버스비 제공 등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전문



동광중학교 전경.

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지도와 전교생 참고서 구입 제공, 방과 후 교과 및 특기적성프로그램 무료 운영, 수학·과학 창의인성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독서활동 시상,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야간공부방 운영 등 신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광중학교는 지리적으로 속초시와 인접해 있어 매년 초등학교 졸업생 중 15~20명이 속초 소재 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어 학생수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광중학교 김석기 교장은 “풍부한 교육적 활동 지원, 무료 급식, 다양한 특기적성·체험활동교육비 무료 지원, 교사 1인당 10명의 학생수이기에 가지는 사랑과 관심의 집중 등 우리 학교만의 장점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속초시로 유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역주민과 동문들이 이 점을 인식해 신입생 유치와 학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15>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IV

건봉사에는 초입의 왼쪽에 부도군(浮屠群)을 이루고 들어서 있다. 이들 부도는 대부분 석종형 부도인데 사찰 경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것이다. 총 69기의 부도가 2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곳은 23기의 부도가 있고 다른 한 곳은 46점의 비석, 부도, 대석 등이 들어서 있어 화려했던 역사속의 금강산 건봉사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부도군 주변에는 역대 간성군수 선정불망비가 눈에 띄게 들어온다. 승도(僧徒)들에 의해 세워진 이 비는 건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일곱 분의 간성군수 선정비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최원, 이용학, 서유여, 정재용, 김용, 이해로, 이면의 등이 있었는데 현재 두 개의 비석만이 남아 있다. 나머지는 간성을 와우산(중훈탑 앞)에 옮겨져 있다.

이최원영세불망비(李最源永世不忘碑)= 간성군수 이최원(1739~?)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중미(仲眉)이다. 1785년(고종 50) 흥천 현감을 거쳐 5월에 간성군수가 되어 1788년(고종 53) 7월까지 역임하였다. 비좌와 비신만이 남아 있으나 서로 유리되어 있다. 비좌는 95cm×40cm×40cm 크기의 장방형으로 상면에는 66cm×21cm×9cm의 크기의 비공이 있다. 비신은 66cm×145cm×20cm의 크기로 3면에 비이다. 1788년(정조 12)에 건립되었다.

이용학선정비(李容學善政碑)= 간성군

수 이용학(1818~1881)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이습(而習)이며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1854년(철종 5) 양구 현감을 거쳐 8월 11일에 간성군수가 되어 1857년(철종 8) 6월 21일까지 역임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방형의 비좌에 1석으로 조성된 비신과 이수를 올렸다. 비좌는 85cm×58cm×15cm의 크기로 자연석이다. 비신은 98cm×35cm×20cm로 자경은 6cm이며 전면에「군수이공용학선정비(郡守李公容學善政碑)라 새겼다. 이수는 전면에 초화문이 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1.37m이다.

간성군수 건봉사치적(治績)의 내용= ①1788년(정조 12)에 군수 이최원(李最源)이 임금께 아뢰어 건봉사에서 나라에 바치는 특산물을 없애도록 하였다. ②1815년(순조 15)에 군수 이해로(李海魯)가 건봉사에서 상정(詳定)해 놓고 대출해 준 돈 500꾸러미와 세금이나 빚을 그 아들 손자에게까지 받아내는 폐단을 없앴으며 세금으로 내던 두꺼운 종이 6권을 감면해 주었다. 또 속세(俗世)로 돌아온 승려들에게는 죄를 면하려고 바

금강산 건봉사 경내의 선정불망비와 치적



사진 왼쪽부터 건봉사 부도군, 이최원영세불망비, 이용학선정비.

치는 돈을 빈부에 따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③1822년(순조 22)에 군수 김용(金鎔)이 건봉사에 바치는 두꺼운 종이 3권, 흰 종이 7권, 잡지 30여권, 대나무 그릇을 만드는 농골(籠骨)을 털어 주었다. ④1826년(순조 26)에 군수 송재의(宋在諤)가 건봉사의 잡역(雜役)을 털어 주었다. ⑤1853년(철종 4)에 군수 서유여가 건봉사의 사패토지(賜牌土地) 가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장부에 감춘 자를 찾아내게 하여 그 가운데 1결을 본사(건봉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⑥1857년(철종 8)에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스스로 봉급에서 600꾸러미를 마련하여 관부에 붙여두고 그 이자로 매년 70여량씩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납부하는 승변전을 내도록 하였다. ⑦1863년(철종 14)에 군수 이인회(李仁會)가 개인 봉급 600꾸러미를 내어 건봉사 스님들이 영구히 종이를 만드는

노역(勞役)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⑧1878년(고종 15) 4월 3일에 산불이 발생하여 사찰과 암자 3,183칸이 모두 불에 탔다. 학림화상(鶴林和尚)이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함도 등을 구해냈지만 나머지 당우와 집기 등은 소실되었다. 군수 이주옥(李周錫)이 관청으로부터 밭과 국을 마련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찰까지 운반하여 승려들을 공양하였으며, 부근 5개 면민으로부터 지분을 이을 재료를 거두어 들여 임시로 거처할 주택을 마련하였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시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